

# 안전사고 위험 교회종탑 철거 지원

## - 안양시 전국 최초 -



김영일

안양시 도시계획과장  
kyi1022@korea.kr

안양시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교회철탑을 정비하고 있어 기독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기독교 자문기구인 안양시 시목회(회장 조용목 목사)에게 교회철탑 설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안 및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철탑 104개소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회의 신청을 받아 종탑 36개소를 철거하기로 하고 야간 조명시간 단축도 이끌어내어 에너지 절약 및 주민의 수면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의 주변에는 교회에서 설치한 철탑이 건물 서너 동을 사이에 두고 조밀하게 서로가 높이 경쟁이라도 하는 듯 우후죽순 설치된 곳이 많이 있다. 교회 종탑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서이다.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어떤 건물이든 안전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신축 당시부터 설치된 공작물(철탑 등)은 설계에 반영되어 안전에 문제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추가하여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나 대부분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대형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물 옥상부분은 풍속이 무척이나 빨라 강풍 또는 우기시 건물의 하중 불균형, 표면 균열로 인한 누수, 시설물이 지상으로 떨어져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곤파스 태풍시 교회종탑이 20여 개소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잘 수습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아 다행스럽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부지역에 종탑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형이나마 견고하게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옥상 또는 벽면에 예쁘게 설치한 곳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90%이상이 임대 건물 옥상에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철골구조물로 설치된 후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교회가 이전한 후에도 종탑을 철거하지 않아 녹물이 흘러내린 흔적으로 보기에 흉한 곳도 다수가 있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주변 또는 종탑에 야간에 새벽까지 조명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에너지 절약과 주민의 수면권 보호 차원에서 협의가 되어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간 종탑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 도시계획과는 교회에서 종탑을 설치후 철거하지 않고 이전한 곳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종탑 등을 상세히 조사 분석하여 철거토록 하고 교회

에서 새로운 철탑 설치를 원하는 경우 주변환경에 적합한 디자인의 모형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인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양시 시목회(회장 조용목 목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회장 박석건 목사)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대형종탑을 설치한 교회를 설득하여 철거한 뒤 규격에 맞는 십자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종교계의 마찰없이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회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정비사례

정비 전



정비 후



교회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90-4번지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회 철탑시설물 정비 계획

교회 철탑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우기시 전도 위험 등 시설물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단계별 정비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임.

I. 현황

구분	교회	철탑 시설물			미설치	비고
		설치				
		계	양호	불량		
계	555	409	305	104	146	
만안구	302	216	154	62	86	
동안구	253	193	151	42	60	

## II. 관리실태

### • 도시경관 저해

- 종교적인 상징성 및 교회 홍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
- 관련 세부 기준이 없어 교회 규모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
- 영세한 교회의 경우 설치 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미관 저해

### • 안전사고 우려

- 철탑 시설물을 구조적으로 취약한 철선 및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아 재해 발생 시 안전에 매우 취약
-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6m 이하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없음
- 정기적인 안전점검 미 이행으로 시설물 안전성 판단 불가

건축법 시행령 : 제118조(옹벽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m를 초과하는 굴뚝
2.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III. 정비계획(안)

### • 철탑 시설물 일제 철거를 원칙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 1단계 : 노후가 심한 철탑(104개소)에 대하여 우선 정비
  - ※ 2012년 : 50개소(250백만원), 2013년 : 54개소(270백만원)
- 2단계 : 상대적으로 양호한 철탑(305개소) 정비

### • 철탑 철거 후 건물 옥상에 철탑 재 설치 불가

-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아닌 철거 방침
- 교회 홍보 등을 위한 십자가는 벽면 등에 부착 유도(교회측 부담)

### • 신규 교회 허가시 철탑 설치 규제 방안 마련(전국과)

### • 철탑 철거는 市에서 직접 시행



경관조례 :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의 경관향상과 관련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 IV. 애로사항

- 철탑 시설물 관련 규정이 없어 교회측 미 동의시 정비 어려움
- 일부 교회 반대로 부분 정비시 사업 효과 미흡
- 교회 건물주는 전면 철거가 아닌 보수 또는 교체 요구 예상
- 개인 사유물 정비를 시 예산 사업으로 추진시 법적 근거 미약

#### V. 처리대책

- 사업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 및 이해 설득으로 공감대 형성 후 정비 추진(신규 설치 비용은 건물주 부담 등)

- 개별(교회 및 건물주) 동의서 징수 후 사업 시행
- 상대적으로 양호한 철탑은 2014년도 이후 세부 정비계획 수립 추진
- 교회 철탑이 불법 공작물이 아닌 개인 사유물로서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임을 고려 시 예산 사업으로 추진

#### VI. 향후계획

- 2011. 10. ~ 12. : 교회 연합회 설명회 및 의견 청취
- 2012. 01. ~ 02. : 공사 설계
- 2012. 04. : 공사 착공
- 2012. 07. : 공사 준공

### 현 황 사 진

- 철탑설치 : 불 량 (104개소)



• 철탑설치 : 양 호 (305개소)



• 미 설 치 (146개소)



### 교 회 현 황

구 분	동 별	교 회	철탑 설치 여부				비 고
			설 치			미설치	
			계	양 호	불 량		
총 계		555	409	305	104	146	
소 계		302	216	154	62	86	
만 안 구	안양1동	7	6	5	1	1	
	안양2동	42	32	28	4	10	
	안양3동	40	21	15	6	19	
	안양4동	13	9	5	4	4	
	안양5동	20	12	8	4	8	
	안양6동	36	21	16	5	15	
	안양7동	18	17	7	10	1	
	안양8동	16	13	8	5	3	
	안양9동	15	12	10	2	3	
	석수1동	13	11	11	-	2	
	석수2동	30	26	20	6	4	
	석수3동	18	11	6	5	7	
	박달1동	17	13	6	7	4	
	박달2동	17	12	9	3	5	
소 계		253	193	151	42	60	
동 안 구	비산1동	12	8	8	-	4	
	비산2동	11	7	4	3	4	
	비산3동	24	22	18	4	2	
	부흥동	3	3	3	-	-	
	달안동	1	1	1	-	-	
	관양1동	47	29	17	12	18	
	관양2동	13	11	10	1	2	
	부림동	8	8	8	-	-	
	평촌동	8	7	5	2	1	
	평안동	6	6	5	1	-	
	귀인동	12	7	5	2	5	
	호계1동	32	24	17	7	8	
	호계2동	24	18	16	2	6	
	호계3동	21	17	12	5	4	
	범계동	6	5	5	-	1	
	신촌동	10	6	6	-	4	
갈산동	15	14	11	3	1		



## 행복한 도시 만들기의 첫째는 '안전'



장석영

평택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짧은 봄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에 성큼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장마로 시작된다.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전국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등 각종 여름철 재해로 홍역을 앓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예측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재난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수년에 걸쳐 우수한 재난안전정책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는 평택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됐다.

'안전'이 시정의 최우선 가치가 될 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입주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안전'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과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장 시민들이 떠날 것이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려하는 기업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도시 발전을 위한 시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전'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도시가 유지·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시는 호우·태풍·대설 등 각종 기상 특보 발효 시 공무원, 통·리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0여명에게 자동으로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 및 유관기관에 위험상황을 즉각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또 풍수해에 대응키 위해 하천, 배수펌프장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상관계시스템을 구축,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 시 6개 배수펌프장 중 유천·통복 등 3개 배수펌프장에는 펌프일체형 수문을 설치하여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한 것은 물론 시 설비 및 유지관리비에서도 절약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견학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또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관기관과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관내 5개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한전, KT, 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정을 맺고, 재난발생 시 응급 복구 작업에 이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응원체계를 구축해 놓았다. 특히 이같은 관계의 강화를 위해 시·유관기관·군부대·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민간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시로 각종 교육, 워크숍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범시차원의 노력을 통해 행정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재난재해에도 신속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자신한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시에서는 먼저 지난 3~5월에 걸쳐 급경사지, 하천, 수문, 저수지, 하수시설, 지하차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모의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6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시험가동을 실시했으며, 우기 시 지하차도 침수방지를 위한 펌프시설 가동여부 등도 우리 과가 직접 나서 철저히 점검을 했다. 이에 더해 수방자재에 대한 준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읍면동에 비축되어 있는 수방자재 및 양수기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 고장 난 양수기는 수리하고 부족한 수방자재는 미리 보충을 해놓았다.

장기적인 대책의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

며 일례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아산방조제 배수관문을 기존 12련에서 20련으로 확장 중에 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현재 홍수 배제능력이 기존의 약 3배가량(2,460m<sup>3</sup>/sec → 7,530m<sup>3</sup>/sec) 향상되어 침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조금 더 효과적인 대책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직원들 개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난관리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있지만 늘 아쉬움이 남는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더욱 효율적인 재난관리방법을 배울 수 있게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으로의 견학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재난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우리 과의 직원들과 상위 부서인 건설교통사업소의 직원들은 휴일에 관계없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한다. 심지어 장마철에는 휴가도 반납하고 상황근무를 설 정도다.

그럴 때 재난 관련 경보가 격상되면 근무의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해 대응을 실시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기도 한다. 이처럼 사생활을 포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그에 대한 보상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과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오기 싫어하는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궁지 하나로 말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에게 승진이나 급여와 관련해 인센티브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난의 피해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의 '무관심'이다.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재난 대응 및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례로 비가 많이 올 때 시민 여러분들이 집 앞의 맨홀에 쌓인 낙엽이나 쓰레기만 치워주셔도 침수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별것 아니겠지' 하고 방치를 하시면 결국 그 배수구가 막혀 도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나아가 우리 시 공무원 모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에 정부가 따로 있고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석영 과장은 197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3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택시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맡아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2011년도 재해대책 업무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